

# 거리 두고 읽기: 관계론으로 본 동아시아

국민대 중국인문사회 연구소 발표

울산과기대 기초과정부 이재연

2015. 2. 23



## 목 차

- 꼼꼼히 읽기 (Close reading)
- 거리 두고 읽기 (Distant reading)
- 모레티의 “거리 두고 읽기”의 사례들
  - 그래프 / 지도 / 나무
- 그래프의 적용 사례 1:
  - 20년대 미국, 중국의 모더니스트 시인 발흥
- 그래프의 적용 사례 2:
  - 20년대 한국 신문, 잡지를 매개한 소설가 집단의 발흥
- 그래프의 적용 사례 3:
  - 독일문학에 있어서 주제적 분석 (Topic modeling)
- 나무의 적용 사례:
  - 김소월 시 분석의 나무형태
- 결론을 대신하여



### 꼼꼼히 읽기 (Close reading)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complex interrelations and ambiguities (multiple meanings) of the verbal and figurative components within a work.” (M.H. Abrams, *A Glossary of Literary Terms*, 7<sup>th</sup> Edition, p. 181).

### 거리 두고 읽기 (Distant reading)

“Understanding literature not by studying particular texts, but by aggregating and analyzing massive amounts of data. (Kathryn Schulz, “What Is Distant Reading?”, *NY Times*, 2011. 6. 24).

“[The goal of distant reading] has often been to shift in the unit of analysis, from work to network, in an attempt to discern the larger structures and constellations in which individual text participate” (Matt Erlin, *Distant Readings*, p. 57)

“계량적 역사학에서 그래프를, 지리학에서 지도를, 진화론으로부터 나무를” (프랑코 모레티, <<그래프, 지도, 나무>>, p.1).

## Moretti, *Graphs, Maps, Trees: Abstract Models for a Literary History* (Verso, 2005).

### 거리 두고 읽기의 사례 1: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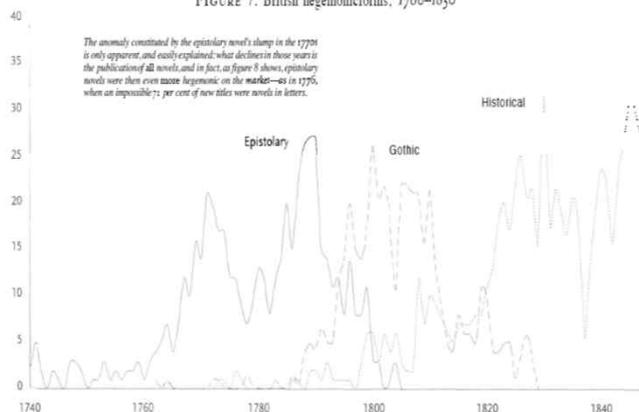
“사건, 주기, 긴 지속[...] 대부분의 비평가는 [...] 사건으로 한정된 영역과 개별적 사례에 더할 나위 없는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론가는 시간의 스펙트럼 상 대척점에 있는, 거의 변하지 않는 구조의 매우 긴 시간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 사이의 중간 수준 [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프레임의 구체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 여러 가지 주기는 **역사적 흐름 안에 일시적 구조물**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 짧은 시간은 모두 흐름이고, 구조가 없다. 긴 지속의 시간은 모두 구조이고, 흐름이 없다. 주기는 그 둘 사이의 -불안정한- 경계지역이다. 구조물은 역사에서 반복을 가져온다. 따라서 규칙성, 순서, 패턴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주기는 **구조물**이 된다. 구조물은 일시적인데, 그것은 수명이 짧기 때문이다 (이론에 따라 10년, 20년 50년이 된다)” (p.14).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영국 문학의 주된 장르, 1760-1850

FIGURE 7: British hegemonic forms, 1760-1850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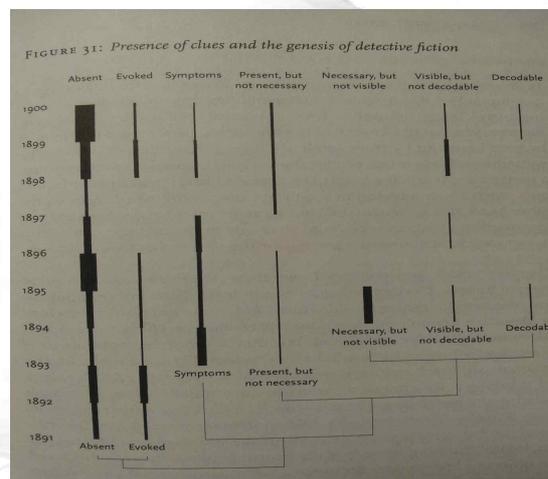
### Moretti, *Graphs, Maps, Trees* 거리 두고 읽기의 사례 3: 나무

“첫 챕터의 계량적 다이어그램, 두 번째 챕터의 공간에 관한 다이어그램에 이어 진화의 나무는, 역사가 체계적으로 형식과 연계하는 형태학적인 다이어그램을 구성한다” (69).

나무: “형식이 단순히 ‘변화하는’ 것만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항상 분기함으로써 변화하는” 주제를 표현. 역사적 사건의 결과이든 혹은 구체적인 ‘원리’의 작용 하에 있는 것이든, 분기의 현실은 형태공간 morphospace-형태들의 공간-을 내재적으로 확장적인 것으로 정의하며, 생명의 역사를 지배한다. [...] 형태론적 나무의 가지들이 직관적 힘을 가지고 포착한 것은 바로 이 끊임없이 성장하여-분기하는 생명이라는 형태이다. '나무는 거리를 기반으로 한 매트릭스의 간략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70).



### 단서의 유무와 추리소설의 기원



## 나무의 의의

“보통 문학비평은 에른스트 마 Ernest Mayr가 칭한 ‘유형학적 사고’를 통해 장르에 접근한다. ‘대표적인 개별자’를 골라 그것을 통해 장르를 전체로서 정의한다. <<셜록 홈즈>>는 말하자면 추리소설이고, <<빌헬름 마이스터>>는 성장소설인 것이다. 괴테의 소설을 분석한다면 그것은 그 장르 전체에 대한 분석으로 간주될 것이다. 왜냐하면 유형학적 사고에 있어서는 사실적 대상과 지식의 대상 사이에 정말로 어떠한 틈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르가 나무로서 시각화되면 그 둘 사이의 연속성은 필연적으로 사라진다. 장르는 추상적인 ‘다양성 스펙트럼 diversity spectrum’이 되는데, 그 스펙트럼의 여러 내적 성질은 어떤 개별 텍스트도 대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74).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모레티 방법론의 의의와 한계

**UNIST**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그래프 분석의 적용 1

Hoyt Long and Richard So, "Network 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Modernism," *Boundary 2* 40 (2) (2013): 147-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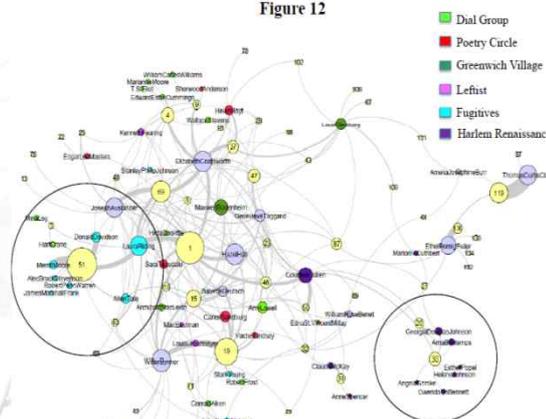
- 문제제기: How did the poets of modernism in different countries "organize poetic activity at a time of increasing "professionalization" and systematize the rapid circulation of new aesthetic ideas and ideological agendas?" (11).
- 방향: "the quantity of poems printed in a journal is a rough measure of a poet's degree of affiliation with that journal" (9).
- 방식: 비슷한 시기 (1910-1930년대) 동안 미국, 일본, 중국 시인들이 잡지에 작품을 투고한 횟수를 데이터로 삼아 잡지-작가의 이원 네트워크를 그리고 그 패턴을 비교.



### Findings 1: 미국의 경우

- Ronald Burt, "structural hole": "is a potentially valuable context for action, brokerage is the action of coordinating across the hole with bridges between people"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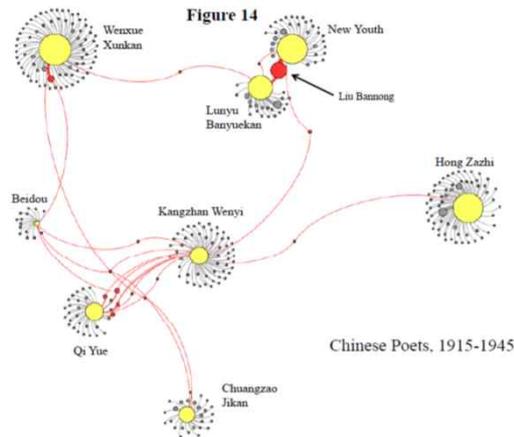
Figure 12



51: 존 크로우 랜섬. 30: 랭스턴 휴즈.



## Findings 2: 중국의 경우



- “The poetry scene in China from the late 1910s to the early 1940s was dominated by intense partisanship, a vigorous “battle of slogans” both between rival groups, such as the more centrist *Lunyu* group and militant *League of Leftist Writers*” (30).

한계: To what extent were “the periodicals and little magazines of the era coherent institutional sites that brought together poets with certain shared affinities”?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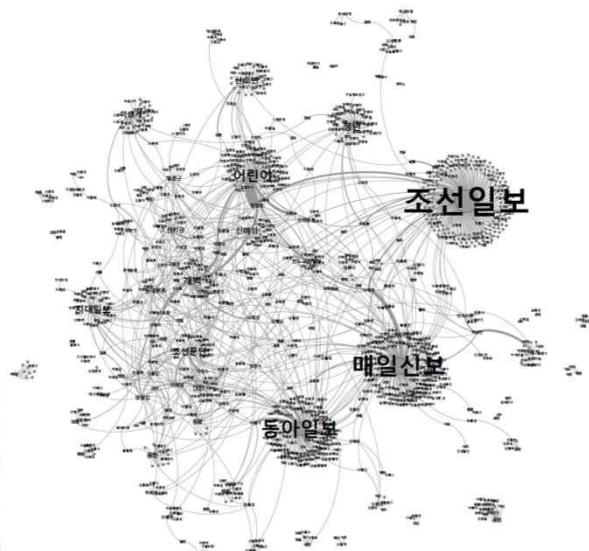
-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언급하듯, 작가나 작품의 속성이 좀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 (35).
- 매체의 역사성에 관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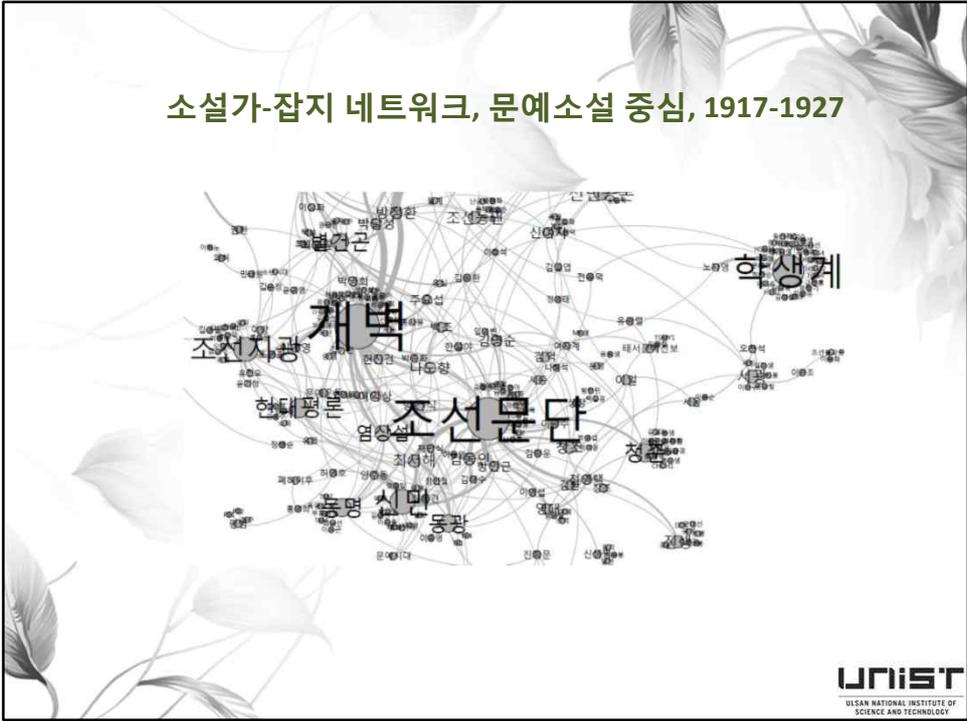
## 그래프 분석의 적용 2

이재연, "작가, 매체, 네트워크: 1920년대 소설계의 거시적 조망을 위한 시론," \_사이\_17 (2014): 257-301.

- 문제제기: 복수의 작가들이 맺는 역동적 사회관계망을 통계적 방식을 사용하여 구해보자.
- 전제: "동인에서 네트워크로"
- 자료: 1917-27년 동안 4종의 신문, 87종의 잡지에 1019명의 작가가 투고한 소설 2284개
- 주장: "이 시기의 문학 작가들은 단수로 존재하는 개별적, 고립된, 정적인 존재가 아니고 항상 움직이고 세력화할 수 있는 복수형태의 관계이고, 이를 작가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262).

## 작가-매체의 공시적 관계망, 1917-1927





- **중심성:**
  - 이수상: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는 지표.”  
네트워크상에서 점의 영향력을 측정.
- **세 가지 중심성:**
  - 정도 중심성: 한 점이 다른 점들을 거느린 정도
  - 근접 중심성: 한 점의 연결이 중앙에 위치하여 다른 점과 쉽게 연결가능 정도
  - 매개 중심성: 한 점이 집단과 집단을 매개하는 정도

**[표] 1920년대 작가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이 높았던 다섯 명의 소설가들**

소설가-잡지(문예소설) 연결정도 중심성	소설가-잡지(문예소설) 근접 중심성	소설가-잡지(문예소설) 매개 중심성
염상섭 130	염상섭 0.597014	박달성 0.100037
나도향 122	나도향 0.592593	김동환 0.070646
주요섭 108	주요섭 0.587156	염상섭 0.060762
박달성 108	박달성 0.587156	백대진 0.052853
최서해 106	최서해 0.563380	나도향 0.052167
소설가-신문 연결정도 중심성	소설가-신문 근접 중심성	소설가-신문 매개 중심성
고한승 480	고한승 0.9379562	최승일 0.035989
연성흠 480	연성흠 0.9379562	고한승 0.033858
이갑기 480	이갑기 0.9379562	연성흠 0.033858
이정호 480	이정호 0.9379562	이갑기 0.033858
김명순 480	김명순 0.9379562	이정호 0.033858



### Hoyt Long, Richard So의 연구와의 차별성:

1. 작품 (동화류, 문예소설류)과 매체 (신문, 잡지)를 구분하여 그에 걸맞는 세부 네트워크를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
2. 중심성: 매체에 경유하여 연계된 소설가 집단과 집단을 잇는 브로커를 네트워크 그림을 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이외에 중심성을 이용하여 수리적으로 구하고 확인하였음.
3. 제언: 작가의 영향력은 소설가로서 갖는 영향력과 비평가로서 갖는 영향력이 다를 수 있을 것. 이것을 분별하여 구별해야 할 것.



### 그래프 분석의 적용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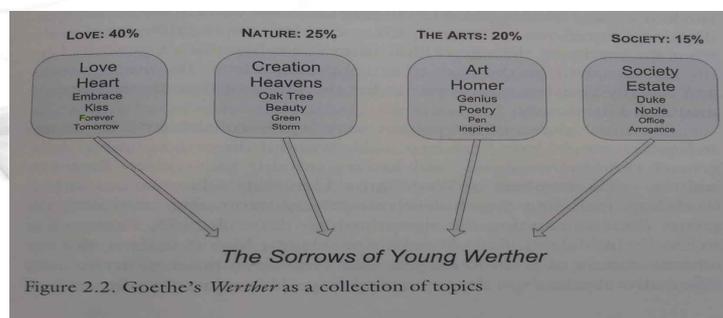
Matt Erlyn, "The Location of Literary History: Topic Modeling, Network Analysis, and the German Novel, 1731-1864," in *Distant Readings: Topologies of German Culture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Camden House, 2014, pp. 55-90.

- 문제제기: 2004-11년 사이 발간된 156개의 독일문학 논문의 70 퍼센트가 한 작품 혹은 한 작가의 작품. 86 퍼센트가 한 명 혹은 두 명의 작가의 작품을 다룸 (55).
- 방향: 작품→작품을 포괄하고 있는 구조를 분석.
- 문제: "At stake is the validity of the categories we use to organize individual works by individual authors into larger clusters" (57).
- 제안: 토픽 모델링+네트워크 분석

### Topic modeling

"aim is to discover the hidden thematic structure in large archives of documents" by identifying and examining "constellations of terms that are likely to occur together" (58)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제군





## 나무 분석의 적용

김주섭, Wayne De Fremery, “알고리즘 기반 모델링을 이용한 시 시각화 방법 연구,” \_디지털 디자인학 연구\_ 13(4): 62-70.

- 1920년대 “민요파” 시인 중 하나인 김소월 시의 분석을 모레티 식의 나무로 표현하면?
- 전제: 시의 “인쇄 원본 자체가 일종의 시각화” (67): 예, 띄어쓰기
- 목표: 작품의 분석이 “또 하나의 창작물이 되게 하는 것”을 목적 (63).
- 방법: L-System: 문자열 재작성 프로그램. 생물의 자기복제 시스템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시각화. 여기서는 시의 연, 행, 어절 등의 표현 형식을 나무의 큰 가지, 작은 가지, 잎사귀 등으로 계층화하여 보여줌.  
여기에 양의 모음과 음의 모음의 채색을 달리하여 나무 그림의 분위기를 변화.



## 예시

제1의아해가무섭다그리오  
제2의아해도무섭다그리오  
제3의아해도무섭다그리오



이상, “오감도 제1호”



김소월, “진달래 꽃”



